

宗敎學이란 무엇인가

(What is the science of Religion?)

蔡 弼 近

「宗敎學은 宗敎를 對象으로 하여 科學的方法으로 研究하는 한가지 學問이다. 宗敎學은 아직도 完成한 學問이라기 어렵지만은 宗敎學이 지난世紀에 처음 唱導된적에는 많은 神學者와 哲學者에게 反對와 嘲笑을 받았다. 宗敎는 科學의 研究의 對象이 될수없는 神聖不可侵의 것으로 여긴 사람도 있었다. 도宗敎學者들이 그 研究資料를 많이 考察한 까닭에 誤解를 받은일도 있었다. 그러나 宗敎의 信者로 神과같이 絕對尊嚴者에게 對하여도 神學的研究를 하는것은 발서 엿적부러 잇는일이다. 또 原始的宗敎라 할지라도 그宗敎를 信奉하는者의 主觀的地位에서 볼것이던 다른宗敎의 信徒나 大差가 없을수 잇는것이니 만차宗敎研究에는 버릴수없는 한方面이다. 그러나 저러나 나는宗敎學에 對하여 別素養도 없는 사람이다. 이제 極히 常識的으로 宗敎學이란것은 어떠한것이라고 조금말하랴할뿐이다」

社會는 人類가 생기면서부터 構成된것이자마는 이社會를 科學的으로 研究하여 社會學이한가지 學問으로組織되기는 十九世紀의 前半期였다. 宗敎도 또한 그事實

은 人類의 太古時代에서부터 存在하였지만은 그事實의 現象과理法을 科學的으로 研究하여 宗敎學이 한가지學問으로 成立되기는 十九世紀의 後半期였다. 燈臺밑이여 들었다니, 문키잇는자가 나중된다니, 잘아는것이 알수 없다느니 하는「과라독스」들은 한가지의 理由가있다.

比較宗敎學의 起源及發達과 그關係資料를 調査하며整理하기에 二十年間이나 獻身한 폴단(L. F. Jordan)氏는 말하기를「比較宗敎學을 樹立하라는 努力은 十九世紀以前에는 痕跡도없었고 宗敎의 科學的研究는 十八世紀까지 始作도하지아니하였다」고 하였다. 또 썬스틀로(Jastrow)教授는 宗敎研究史概說가운데 「어떤意圖의 研究는 人類의思想과 마찬가지로 오래였지만은意味로서는 宗敎研究는 모든科學中에 가장 새것이고 記述한 宗敎를 科學的으로 研究하기는 近年의 事이다. 이意味에서 아직 完全히 成學問이라고 할 수 없다.」

宗敎學이란 大哲人 사용한이는

(Hegel)이다. 헤겔의 神學과對立시켜 一般宗敎를 研究하는 學問이란 意味로 使用하였다. 그러나 헤겔은 現代와 같이 모든宗敎를 많이 아는 時代의 사람이 아니었으니 만치 그取扱한 宗敎의範圍가 狹小하였다. 波斯와埃及과 猶大와 希臘及羅馬의 모든古代宗敎와 基督敎를 研究의 對象으로 삼았을뿐이었다. 佛敎와 回回敎에는 손도 대이지 아니하였다. 儒敎와 印度敎와그밖에 原始的宗敎와 같은것도 잘알지 못하였다. 헤겔은 自己의 아는宗敎를 自己의 歷史哲學의見地에서 觀察한것을 發表한것이였다. 이와같이 헤겔의 宗敎學은 自己의 論理的方法과 哲學의 原理에 適應시킨것이므로 科學의態度를 가진 近代의宗敎學까지는 되지 못하고말았다. 그러나 여러宗敎의 事實을 系統안에 包容하고 開展의連鎖에 結連시켜어綜合的 研究을 한것만은 宗敎研究史上에 記念할만한 事業이였다.

쑤오쎬이(Sassag)氏는 著書가운데 말하기를「宗敎學의 成立을 叙述하는者로서 누구든지 그開拓者로 言語學研究에서 始作한 맥스몰러(Max Müller)氏와 歷史研究에서 始作한 릴레(Tiele)氏를 빼일수가 없으리라고 하였다. 맥스몰러氏가 一千八百七十年에 英國學士院에서連四回나 宗敎學에關한 講演을 한일이 있었다. 이講演에는 宗敎學이 한科學으로 成立될수있는 理由를 各方面으로 辯護한것이였다. 三年後에 이講演을 編述하여 宗敎學緒論으로 發行하였다. 當時에는 宗敎學이란 訓學名을 보고서 識者가모도驚異의態度를 가지었다. 그러나 現今에 와서는 맥스몰러氏가 斯界의 先驅者인것을 認定하지 아니할수 없게 되었다.

맥스몰러氏는 印度와 伊蘭(波斯와그附近地方)과 希臘

과 羅馬의住民 宗敎學的으로, 人類學的으로, 神話學으로, 同一한 宗敎學的으로, 屬하였다는것을 創唱하였다. 이 十九世紀에 한 宗敎學의 發見을 한것이였다. 그리하고 梵佛手하여 後日宗敎學의 貢獻한바가 적지 아니하였다. 맥스몰러氏는 宗敎學 言語의 關係를 密接不可離의 여기었다. 言語의 研究는 思想의 展開를 吟味하는데 適確한 方法이며 또 人性은宗敎에서 그第一重分을 示現하는것이라고 하였다.

그後에 릴레氏가 宗敎學要領을 著述할때(一八九七)에 「只今부터 二十五年前에 맥스몰러氏가 聽講者와 讀書者에게 많은辯明을 하지 아니할수 없었듯이宗敎學은 이미 모든科學中에 永續的地位를 얻어이제過去二十五年前의 科學의 研究의 結果를 發表할수 있게되었다」고 말하였다. 릴레氏의 宗敎學要領도 出刊하기七年前에 에디바라大學에서 講演한것을 編輯發行한것이였다. 맥스몰러氏나 릴레氏는 各當時에 神學者의 많은 反對를받았다. 그러나 宗敎學이 한科學으로 成立하는데는 別다른 影響을 받지 아니하였다.

우에서말하든 쑤오쎬이氏는 一千八百八十七年 著書에 말하기를 宗敎學이 完全히 獨立한一科學으로 認定받기는 最近에 된일이라고하였다. 十九世紀上半期부터 自由研究의 氣風이이러나지마는 研究의資料가 後半期에 이르러서야 豐厚하게 된것이였다. 쑤오쎬이氏는 宗敎學興起의 由來에對하여 三種의原因을 列學하였다. 第一은 哲學의 宗敎를研究의 對象으로 삼은것인데 特別히 칸트氏와솔라이엘라켄氏가 宗敎哲學의 基礎를둔것이였으며 헤겔氏가 여

리가 지宗教學 包括하여 研究하기始作한것이오 第二는歷史哲學이 人類의生活을 全體로써觀察하게된것이오 第三은文明史가 地理上의新發見과 言語學 人類學의 新發達로 말미암아 많은資料를 提供한것이라고하엿다.

二

上述한 宗教學成立의 概略으로 말미암아 宗教學의正體가大部分드러난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새삼스럽게 다시定義같은것을 할마음이없다. 그러나 便利上다른 科學과區別삼아 몇마디더하고치한다. 宗教學은 宗教現象을 科學의으로研究하는 經驗科學이다. 經驗科學이란것은 論理學과같이 先天的根據를 明瞭히할수없는 研究이기때문이다. 宗教는 世界文化에對하여 重要한地位와 緊切한意味를가졌으며 複雜한形態와 錯綜한內容을 가졌기 때문에 그真相을 了解하는쉬운일이아니다. 그런데 宗教學은 宗教의誕生發達로부터 그構成組織과 그機能事實에 이르기까지 모든現象을 經驗的立場에서 系統的으로 把握하고자 하는것이다.

그러므로 狹義의宗教學은 特殊한 宗教의 體系안에잇어서 宗教에 關한 教義와 制度를 是認하고 그合理性을 護教的으로 說明하라하는神學과는 같지아니하다. 王一定한 哲學的體系에 基礎를두고 宗教의觀念의 眞理性과 宗教生活의價値와 目的같은것을 批判하라하는 宗教哲學과도 그範圍를달리한다. 한거를더 나아가서 宗教學은 宗教史와도 같지아니하다. 宗教史는 어느特定한 한宗教의 俱體的個性을 備有한現實에서 一定한普遍妥當的價値와 一定한精神的生活內容의 實現過程을 了解하게하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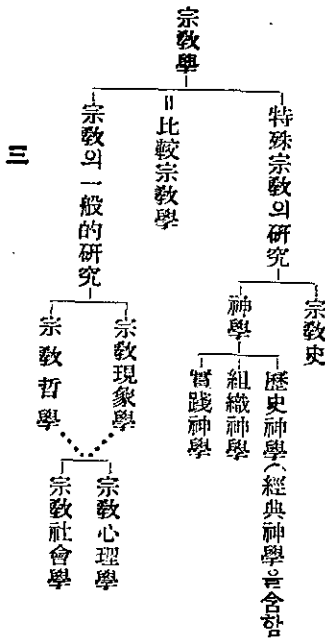
이다. 宗教學도 歷史的研究을 出發點으로삼지마는 宗教史와같이 一定한價値를 그成立의 條件으로 삼지아니한다.

比較宗教學도 宗教史와 類似한學問이니만치 모든宗教에關한事實을 蒐集하고分析하고解釋하며 排列하여그異同을比較하며 그種類를分合하는것이다. 宗教學에서와 같은 宗教의歷史的考察은 必要한豫備的研究로 삼는것이오 王 宗教學의 過去를 回顧할지라도 이런 發生的比較研究에서 發達되어 온것이 分明하다. 民族學者들과神話學者들과 歷史家들이 未開民族의 宗教信仰에 關한 많은事實을 提供하지 아니하였으면 宗教學은 發生하기도 어려웠고 發達하지도 못하였을것이다. 그러나 그後에 宗教學은 心理學과 社會學과 哲學의 供給하는 材料와 方法을 採用하여 宗教自體의 構造와 機能을 說明하는經驗科學으로서의 內容을 整備하고 王 實際의效果로 收穫하는중이다. 이런 內容의發展과 科學의效果의 實際方面으로 말할지라도 宗教學이 神學과 宗教哲學은 勿論하고 宗教史와 比較宗教學과도 殊別할만한 研究體系의 特色이음을 나타내어는것이다.

上述한바와 마찬가지로 宗教學은 固有한 體性을 다할지라도 아직까지 宗教史나 比較宗教學과 同類인學者도 잇고 類似視하는 사람도 많다. 爲先 王 (Meuser) 氏는 宗教의 現象을 記述한 宗敎學이라고 하고 分類하는 比較宗教學이라고 하고 王 宗教史와 比較宗教學과 宗教哲學의 三部門을 綜合的學이라고 하엿다. 또 달미엔(D'Almeida) 氏는

氏는 宗敎學은 宗敎史와 宗敎心理學과 宗敎哲學의 總括된 것으로 宗敎의 歷史의 發展과 宗敎의 觀念이며 宗敎의 行事的 心理的 起源及 性質과 宇字 進化에 對한 宗敎의 地位를 取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풀단氏와 말비엘라氏의 見解는 比等한點이 있다. 마즈막으로 트렐취(Troelstra)氏는 現今의 宗敎學은 宗敎의 史實의 經驗의 取扱으로 宗敎心理學에서 始作하지마는 宗敎可本質을 綜合的으로 組織的으로 研究하는 宗敎哲學이 그以上으로 重要한 部分이라고 말하였다.

宗敎學의 內容畧表



틀러氏의 말과같이 宗敎學이란 것은 宗敎의 變遷變化와 그 起源과 本質을 究明하여 宗敎現象을 科學的으로 說明하는 것인 故로 形態論的部門과 本質論的部分이 있다. 中에는 本質論的部門의 統一的, 組織的 研究에 重要點을 두는 것이다. 이와같이 宗敎學이 特殊의 領域을 所有하였다 하지마는 그 重要問題의 取扱方法이다

트고 各方面에서 고오는 豫備智識이 같지 아니 때문에 自然的 學派의 傾向을 띠게 되는 것이다. 學이 면 哲學 自然哲學者도 있고 倫理哲學者도 있고 宗敎 實存論的哲學者도 있고 心論的哲學者도 있고 二元論的哲學者도 있고 多元論的哲學者도 있고 樂觀論的 哲學者도 있고 悲觀論的 哲學者도 있고 懷疑論的 哲學者도 있다. 그와같이 宗敎哲學에서도 려가지 傾向이 있을수 있다.

宗敎學안에는 宗敎史學派와 宗敎哲學派가 가장 重要한 學派일 것이다. 그렇나 밖에도 神話學派와 言語學派와 人類學派 或은 民族學派와 心理學派와 社會學派가 있다. 이와같이 學派의 傾向이 있는 特殊의 宗敎學은 어느 것이든지 自己特徵과 固有偏向을 가진 것이다. 이런 特徵과 偏向은 短點도 있으나 長處도 잇는 것이 故로 無視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러가지 方面을 골고리로 考察하여 公平無私하게 取扱하는 것이 完全한 綜合的 宗敎學의 本務일 것이다. 이意味에서 宗敎學에서 取扱할 資料와 使用할 方法에 對하여 各方面으로 慎重한 考慮를 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그取扱하는 資料가 같지 아니하거나 使用하는 方法이 다르므로 말미암아 問題는 變화되기 때문이다.

宗敎學에서 取扱할 資料를 簡單히 紹介하면 이런 것들

이 있다. (一)各宗教의 經典과 그解釋書類와 論文書翰 같은 것이니 이런것들을 歷史的으로 原文批判的으로 吟味할일이오 (二)各宗教의 歷史的記述이니 이것도 그眞僞를 檢査하며 그內容을 分析하여 學的으로 研究할것代의 文化的 社會的 모든事情을 追願할것이오(五)研究者自身の 主觀的經驗도 獨斷的主張에 빠지지 아니하는 限 參酌할것이오 (六)研究者가 自己周圍의 宗教現象에 對하여 適當한試問과 明確한觀察로 把捉할것 같은것이 重要한 資料일것이다. 이와같이 主觀的方面으로, 客觀的方面으로, 過去の追憶으로, 想像의補充으로 各種의 資料를 整頓하는것이다.

上述한바 여러가지의 資料를 取扱하면서도 어떤學者는 低劣한宗教 다시말하면 原始宗教를 重視하고 어떤學者는 高等한宗教 다시말하면 現存한 大宗教를 研究의 中心으로 삼는다. 神話學派나 民族學派나 言語學派는 흔히 前者에屬하고 宗教哲學派는 普通 後者에 傾한다. 原始宗教는 「마나」나 「라부」나 「토크」이나 그바스름한 生活形態를 內容으로 하였다. 유대人也 古代에 是 많은 라부(禁忌)를 가진 民族이었다. 그렇나 漸次 發達하여 高尚한 宗教로 變化한것이 유대民族史가운데 나타난다. 高等宗教는 純化의洗禮를받아 原始的外殼을脫去하고 分化의祝福을 받아 單純하든 舍蓄이 複雜한展開로 넘어간것이다. 原始宗教를 宗教研究에 必要한資料

이며 (三)民間傳承으로 나뉘오는 神話와 傳說과 儀禮와 慣習이니 이런것을 參考하여 文獻으로 明瞭하지아니한部分을 補充할것이며 (四)地質學과 考古學等 各方面의 모든材料에서 直接間接으로 宗教가 存續한 各時로 아는사랑은 高等宗教는 複雜한內容이 있기때문에어 데까지가 本質的의것이이며 어데불어가 附隨的의것인지區分하기가 困難하다고 한다. 그反面에 原始的宗教는 그組織이 簡單하니만치 그本質을 把捉하기가 比較的容易하다고 한다. 그렇나 宗教哲學派의 學者들은 宗教的要素를 더豐滿하게 展開시킨 高等宗教일수록 宗教의 本質的, 普遍的 生命을 더完全하게 理解할수가 잇다고한다.

이 두가지의 主張은 各各 一理가 있다. 그렇나 發生的으로 볼때에는 原始時代가 必要하지마는 目的的으로볼 때에는 完成時代가 더必要한것이다. 社會를 理解함에는 人類의 始祖가 要求되거나와 人類社會의 現在狀態도 必須의것이다. 그와같이 宗教學에서 宗教的現象을 經驗的으로 考究하는데도 兩者가 다 必要할것이다. 그러면 過去의 宗教學은 發生過程에 잇으니만치 原始的宗教를 研究의 資料로 더많은 參考를 받는다 現今의 宗教學, 乃至來의 宗教學은 高等宗教를 觀點의焦點에 들것과 같이 이意味에서 릴레氏의 말과같이 本體論的部門이 形態的部門보다 더 大하다.